시방삼세 통하는 보통교(普通橋)

조계총림 방장 현봉 근일 대종사



다리는 물길이든 땅길이든 양분(兩分)되어 있는 그대로 하나가 되도록 이어주는 방편의 가운데 길이다.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진 것을 연결하면서도, 그 사이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도 서로를 하나가 되도록 허공에 걸쳐 통하게 하는 다리는 곧 공로(空路)이며 중도(中道)이다. 〈중략〉

화엄경 정행품에는 다음과 같이 설한다.

"강물을 바라볼 때는 중생들이 진리의 흐름을 따라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도록 원할지어다. 산골짜기의 물을 볼 때는 중생들이 먼지와 때를 씻고 맑은 마음이 되도록 원할지어다. 다리를 건너갈 때는 중생들이 누구나 나와 남을 피안(彼岸)으로 건네주는 다리처럼 되기를 원할지어다."

수행하는 보살은 하나하나의 사물을 대하면서 모두에게 무연의 자비심을 내도록 발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을 가로 질러 건널 적에 얕은 물은 간단히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기도 하지만 깊은 물은 다리를 놓아야 한다. 다리는 지형 따라 그 방법이나 모양이 각양각색이니, 다리마다 사연이 있고 그 이름도 다양하다. 〈중략〉

우리 조계산 송광사의 골짜기에도 아름다운 전각의 지붕이 있는 무지개 돌다리인 극락교와 능허교가 있고, 수석정 가는 길에는 외돌다리〈略彴〉가 있다. 그리고 낙하담(落霞潭) 가에 지난 백년 동안 송광사와 애환을 같이 하며 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니고 불사를 위해 온갖 것을 실어나르던 오래된 낡은 다리가 있었다. 지난봄에 그 다리를 헐어내어 새롭게 튼실한 둑을 만들어 조계수가 멈추는 낙하담을 약간 높이고, 무너미하는 둑 위에 다리길을 만들고 보통교(普通橋)라고 이름하였다. 이 보통은 시방삼세에 두루 통한다는 뜻이다. 모든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고 했다. 보통교는 이 세상 누구라도 어디라도 두루 널리 유통(流通)하는 다리이니, 사람도 건너고 나귀도 건너고 말도 건너고 산짐승도 건너고 차도 건너며 때로는 여럿이 때로는 하나씩 건너간다.

橋流水不流 霞潭開眼睛
淸風與明月 去來不留情

다리는 흐르고 조계수는 안 흐르니 낙하담은 맑아서 눈동자를 열었는데 맑은 바람 불어오고 밝은 달이 비추지만 오고 가는 그 정취를 남기지 않는구나.

영축산 백일홍이 붉게 피었도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箇箇面前明月白(개개면전명월백)하고
人人脚下淸風吹(인인각하청풍취)로다.
打破鏡來無影跡(타파경래무영적)하니
一聲啼鳥上松枝(일성제조상송지)로다.



낱낱의 얼굴은 달처럼 희고 사람들 발밑에는 맑은 바람이 분다. 거울을 깨트려 그림자마저 없나니 긴 소리로 우는 새가 소나무 가지에 오르도다.

안거를 성만하고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여! 산문을 나서는 그대들의 걸망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무더위를 식혀주는 맑은 바람과 갈증을 풀어줄 감로(甘露)는 넉넉히 준비했는가? 수행자의 마음은 편협되지 않아야 하고 성냄이 없어야 하며, 두려움이 없어야 하며 어리석지 않아야 하리라. 이러한 역량이 구족 되어야만 구룡지 옆 백일홍이 무더위에 더욱 붉게 피었다는 영축산의 소식을 믿고 찬탄하리라.

약산 스님이 어느 스님에게 세간에 나아가 화주를 하라 시켰는데, 그 스님은 겨우 산문 밖에 나가 어느 절 감지행자의 집으로 갔다. 행자가 "스님은 어느 절의 화주이십니까?" 하니 스님은 "약산에 있소." 하였다.

행자가 "그러면 약이라도 좀 가져오셨는지요?" 하니 스님은 "행자는 무슨 병이 있으신지요?" 하였다. 행자가 은 20냥을 갖다가 주니, 그 스님은 얼른 받아서 약산으로 돌아갔다. 이에 행자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약산에 기특한 사람이 있다면 은이 되돌아올 것이며, 기특한 사람이 없다면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오." 하였다. 스님이 바로 약산으로 돌아오니 선사는 "어찌 그리 빨리 돌아오는가?" 하였다.

스님이 "불법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하니 선사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였다. 스님은 앞의 일을 자세히 말했다. 선사가 듣고 나서 "그대는 빨리 그 은을 그에게 돌려주어라." 하니 스님은 은을 가지고 행자의 집으로 가서 은을 돌려주었다. 행자가 그의 아내에게 "약산에도 기특한 사람이 있었구료." 하며 다시 은 20냥을 보태어 약산으로 보냈다.

花笑階前雨(화소계전우)하고
松鳴檻外風(송명함외풍)이로다.
何須窮妙旨(하수궁묘지)리오.
這箇是圓通(저개시원통)이로다.

꽃은 뜰 앞의 빗소리에 웃고
솔은 난간 밖의 바람에 운다.
어찌 묘한 이치를 궁구하는가?
이것이 바로 뚜렷이 통함이로다.

8월 30일 계묘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전국 100여 선원에서 약 2000명의 수좌가 만행에 나섰습니다. 이에 조계종 종정예하를 비롯해 각 총림 방장스님들의 법어를 게재합니다. 법어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본래 마음 바탕 깨달아 주인공으로 살라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千江流水元歸海(천강유수원귀해)하고
日落西山不離天(일락서산불리천)이로다.
日月普現一切水(일월보현일체수)요.
一切水月一月攝(일체수월일월섭)이로다.

서산(大師)의 법명은 휴정(休靜)이고 호는 청허(淸虛)라 하고 서쪽 묘향산에 오래 계셨으므로 (西山)이라고도 합니다. 선가귀감은 서산대사가 10여 년 동안 묘향산에서 50여 권의 경론과 어록을 읽다가 중요한 대목이 있으면 기록해 두었다가 다시 각 구절마다 주해를 달아 풀이하고 차례로 엮어 놓은 선가의 귀중한 책입니다.

선가귀감 첫 머리에 유일물어차(有一物於此)하니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종본이래(從本以來)로 소소영영(昭昭靈靈)하여 본래로 좇아 소소영영해서 부증생(不曾生) 부증멸(不曾滅)이라. 일찍이 난 것도 아니고 일찍이 멸한 것도 아님이라. 명부득(名不得) 상부득(狀不得)이로다. 이름을 지을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음이로다.

일물자(一物者)는 하물(何物)고 한 물건이란 어떤 물건인가? 옛사람이 말하길 고불미생전(古佛未生前)에 응연일상원(凝然一相圓)이라. 옛 부처 나기 전에 뚜렷이 밝았도다. 석가유미회(釋迦猶未會)어니 가섭(迦葉)이 기능전(豈能傳)가 하니라. 석가 부처님도 알지 못하는데 가섭이 어찌 전할까 보냐?

여기서 모르는 것은 아는데 상대되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知) 부지(不知) 불속(不屬)입니다. 알고모르는 것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풍가계(風可繫) 공가착(空可捉)이나 차일물(此一物) 수능설(誰能說)이리오. 바람을 얽어매고 허공을 붙잡을 수 있을지라도 이 한 물건은 누가 능히 말하리오.〈중략〉

남악회양 스님은 처음 숭산 안국사를 찾아가니 안국사가 조계에 가서 물으라 하여 육조 스님을 찾아갔다. 육조 스님께서 "어디서 왔는가?" "숭산에서 왔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회양 스님이 꽉 막혀서 어쩔 줄 모르다가 팔년 만에 깨치고 나서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도리어 닦아서 증 하는 것이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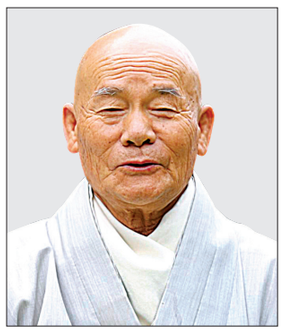
"닦아서 증 하는 것은 없지 않으나 물들어 더럽혀짐은 없나이다."

"다만 물들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모든 부처님께서 수용하는 것이니 네가 그러하면 나도 그러하다."하고 인가 하셨습니다. 〈중략〉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가 높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또 좋고 나쁜 것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시·비·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 바탕을 깨달아 주인공의 삶을 살 때 허공에 손 내젓는 것처럼 활발하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략〉

화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一擊忘所知 更不假修治
動容揚古路 不墮悄然機
'탁' 부딪히는 소리에 아는 바 잊어버렸네. 다시 닦을 일이 없네. 움직이니 옛길이요, 망상에 떨어질 일이 없네.

납승의 오도송입니다. 납자의 살림살이가 이와 같더라.

산하대지에 크고 작은 온갖 생명들 충만한 허공이, 태양이, 바람이, 흐르는 물이 감싸 안아 서로서로 끝없이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몸 四大는 어디서 밀려온 끝 물결일까? 광활하고 신비한 이 몸, 이 몸은 어디서 불어온 끝 파도일까? 알 수 없다, 이~뭘까? 이뭘까 화두로 백천만 번 파도치고 물결쳐서 뒤집어 돌이키고 돌이키자.

부처님의 第一聲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인가? 철저하게 내 책임이다. 보고 듣는 이 물건, 이~뭘까? 굴리고 굴려 願我世世 生生處 언제 어디서나 尙於般若 不退轉 그때그때 알 수 없는 이 물건, 이 반야, 이탈하지 않겠습니다. 관세음보살 대자대비 큰 사랑으로 이 觀心, 한 덩어리, '응관법계성' 이 應觀, 이~하는 이 자체 끝없이 끝없이 돌이켜 어루만져 돌이켜라.

〈중략〉

巍巍落落 赤裸裸
獨步乾坤 誰伴我
한 물건도 붙을 수 없는 이글이글 타는 이 물건 하늘땅 녹아져 견줄 데가 없네.

코가 꿰이면 끌려가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야 합니다. 만물의 영장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생사가 붙을 수 없는 이뭘까? 가 기본 첫 단추 업장이 좌우할 수 없는 기본 화두 관세음보살 부르는 이 물건, 천상천하에 유일무이 이 물건 돌이켜 굴리고 굴려 돌이켜라. 통쾌하다. 숨이 쉬어진다. 영혼이 흐뭇해진다. 화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살았다고 할 수 있겠나? '소가 되어도 코 꿸 구멍이 없다.' 이 법문을 지금 만났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에서도 이~뭘까?

〈하략〉

